

# ‘지역’ 전략축 더해 판 키운다 B2B·플랫폼으로 질적 성장

## LG전자

글로벌 사우스에 집중 투자  
AI 데이터센터 등 기회 모색  
논하드웨어 수익 비중 71%  
서비스 중심 순환모델 확대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와 중장기 사업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부터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됐다.

조주완 사장은 “지난해 최대 매출 등 견조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데에는 B2B, 논하드웨어, D2C 등의 ‘질적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질적 성장 영역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3%포인트 늘었고 영업이익의 비중은 7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질적 성장 영역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낮고 고객 관계 기반의 확장성을 갖춘 B2B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순환형 모델의 논하드웨어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전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지정학적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홈 중심 사업에서 모빌리티,

커머셜 등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수많은 디바이스를 플랫폼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반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사업 기회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지역으로 수많은 IT 기업이 모이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것이다.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지역이다. LG전자는 지난 28년간 구축해 온 현지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 특화 라인업, 생산·서비스·연구 개발(R&D)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관세”발효가 되면 지체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플레이북’을 만들어 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며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베트남 등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되,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확대하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준비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들 역시 전사 전략방향에 맞춰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HS사업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트인, 부품 등 B2B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은 해외로 적극 확대하고 AI 홈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MS사업본부는 TV, 사이니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총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webOS를 축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VS사업본부는 SDV(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제어, 관리하는 자동차) 전환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신설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난방·환기·냉방(HVAC) 사업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전사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는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건을 비롯,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승윤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고부가로 재편 가속… ‘적자 탈출’ 승부수”

### 롯데케미칼

과감한 조정 통해 본원 경쟁력 확보

“현재 진행 중인 고부가 사업구조로의 사업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금 흐름 중심의 엄중한 경영을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원적인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 혁신 활동들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사진)는 2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49기 롯데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 같은 에셋 라이트(자산 경량화) 전략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 재편에 매진 중이다.

이 대표는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 각 사업을 수시로 재정립하고, 고부가 사업은 자원을 집중해 더욱 고도화하고, 적자 사업은 과감한 운영 축소 및 조정



등을 실시해 사업 구조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49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4개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재무제표 승인에 포함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사내이사 선임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 회장을 재선임하고, 황민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기타비상무이사로는 김종근 롯데지주 경영혁신1팀장을 선임했다.

이어 신임 사외이사에는 조혜성 대상(주)상담역, 서휘원 전 (주)삼양사 AMBU장을 선임했으며, 서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도 겸직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내실 경영·신사업 전환으로 반등 모색”

### 금호석유화학

3대 성장 전략으로 지속 가능성 ↑

“올해도 어려운 업황이 지속되겠지만 내실 경영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바이오·지속가능소재,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등 3대 성장 사업으로 기존 사업 체질 개선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갈 것입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건물에서 개최된 제 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업황 악화에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중장기 3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 대표는 “첫째,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을 강화하고, 둘째, 바이오 및 지속가능 소재 사업을 확대하며, 셋째,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총 결과, ▲사내이사 박준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수 선임의 건 등을 포함한 5개 안건 전부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사외이사 4인 선임 건의 경우 기존 박상수, 권태균, 이지윤 후보가 각각 재선임 되었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과거 세 차례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주주 박철완 측은 올해 별다른 주주제안을 내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일 주총 결과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비롯해 회사 측에서 선임한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 기업 운영과 업황 회복에 집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 중간배당 체계 손질… ‘주주 권익’ 강화

### LG생활건강

중간배당 기준일 ‘유연화’  
정관 변경 등 6개 안건 통과

LG생활건강이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해 6조 8119억원이다. 영업이익은 4590억원

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은 20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커졌다.

올해부터 LG생활건강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성향을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장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으로 의결했고 배당성향은 31%다.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 승인 건도 의결했다.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현행 ‘7월 1일 0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고,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 확정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의 일환으로 LG생활건강은 주주들이 배당정책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 선임에는 사내이사로서 이명석 전무(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서 이상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상철·이승윤 교수를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3조6000억 유상증자, 결국 주주 위한 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투자-후성장’ 전략 강조

“유럽연합의 군수품 역내 조달 등이 큰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투자가 절실합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사진)는 25일 경기 성남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가 필수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해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주총에서 별도로 질의응답을 갖고 “해외 입찰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집행하려면 유상증자가 최적인 방안”이라며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도 유상증자 이후 크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차입 등의 방식으로 단기간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최근 빠르게 회복하는 유럽 방산업체와의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 유상증자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